

# 미국의 식품소비 패턴 변화와 우리의 비교

## 신 동 화

(전북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지난 20년간 미국의 식품 소비 형태의 변화는 육류, 가금육, 생선류의 소비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은 소비 형태의 변화는 특히 1966년 이후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는 식품가격의 상승, 총식품공급량의 증가, 소득상승, 식품영양과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생활 형태의 변화, 식품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기술적 진보를 들 수 있다.

가금육의 실질적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향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데 1976년 연간 1인당 소비량(시장 판매 중량 기준)과 1989년을 비교하면 33 파운드가 증가하여 64%가 상승하였고 동 기간 동안 적육은 17파운드가 감소하여 11%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표1).

표 1. 연도별 적육과 가금육의 소비량

단위: 파운드 / 인 / 년

연 도	1인당 소비량 (시장 판매중량 기준)							
	적 육					가 금 육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합	닭고기	칠면조	합
1966	78.1	3.9	3.5	54.6	140.1	35.5	7.9	43.4
1967	79.8	3.3	3.4	60.0	146.6	36.3	8.7	45.0
1968	80.2	3.3	3.3	61.8	150.2	36.5	8.1	44.6
1976	94.3	3.3	1.6	53.6	152.8	42.5	9.1	51.6
1977	91.4	3.2	1.5	55.8	151.9	43.8	9.1	52.9
1978	72.2	2.4	1.4	55.8	146.8	46.4	9.1	55.5
1986	78.4	1.9	1.4	58.6	140.2	58.7	13.3	72.0
1987	73.4	1.5	1.3	59.1	135.3	62.7	15.1	77.8
1988 <sup>1)</sup>	72.7	1.4	1.4	63.1	138.6	64.1	16.2	80.3
1989 <sup>2)</sup>	69.9	1.4	1.4	62.7	135.4	67.5	16.9	84.4

1) : 예정치

시장정보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6년 적육소비량 5.4kg, 닭고기 1.7kg에서 1987년 각각 12.6kg, 3.4kg으로 각각 133%, 100%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적육의 소비량이 오히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2).

표 2. 연도별 육류 공급량(한국)

단위 : kg/일/년

연도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 <sup>*)</sup>
1970	1.6	3.6	0.04	1.4	0	8.3
1975	2.1	2.8	0.2	1.6	0.04	9.2
1980	2.6	6.3	0.04	2.4	0.04	13.9
1985	2.9	8.4	0.04	3.1	0.07	16.5
1987	3.6	8.9	0.07	3.4	0.07	18.9

1) 총계에는 토끼고기, 고래고기, 부산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미국에서 1989년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시장 판매중량기준)은 24파운드로 소양축의 전업 사태가 벌어졌던 1976년 기록적인 소비량 9.43파운드 보다 26%가 낮아진 현상이다. 1987~89년 사이의 예측은 1960년대 이래 적육과

쇠고기의 소비량이 최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일인당 닭고기 소비량(시장 판매중량기준)은 1966과 1976년에는 쇠고기의 절반 이하이었으나 올해(1989)는 쇠고기와 거의 대등해 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뼈를 빼 중량으로 환산하여 보면 쇠고기 보다는 낮으나 돼지고기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사실 1989년의 뼈를 빼 가금육의 일인당 소비량은 60파운드로 적육 112.4 파운드에 쫓아가고 있다.

1989년도 생선과 패류의 소비량은 일인당 15.4파운드로서 지난 수년간 소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1966년 부터 1987년 사이 이들의 소비량은 41%가 증가하였다.

날생선, 냉동생선, 패류의 소비가 크게 늘어서 64%가 상승하였고 통조림제품, 주로 다량어 통조림은 19%가 올랐다.

가격의 영향

식품의 가격, 특히 이들 대체 제품의 가격은 식품 소비에 크게 영향은 미친다.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육의 소비 대체 현상은 이들의 가격과 연관 관계가 깊다는

표 3. 연도별 적육, 가금육 및 어패류 소비량

단위 : 파운드/일/년

년 도	1인당 소비량 (뼈를 빼 중량 기준)									
	적 육				합	가 금 육			어패류	총합
	쇠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합		
1966	73.7	3.2	2.6	44.3	123.8	24.6	6.3	30.9	10.9	165.6
1967	75.3	2.8	2.5	48.4	129.0	25.2	6.8	32.1	10.6	171.7
1968	77.3	2.6	2.4	49.4	131.7	25.4	6.4	31.7	11.0	174.5
1976	88.9	2.7	1.2	39.2	132.1	29.4	7.2	36.6	12.9	181.5
1977	86.2	2.6	1.1	40.5	130.4	30.4	7.2	37.5	12.7	180.7
1978	82.3	2.0	1.0	40.4	125.7	32.1	7.2	39.3	13.4	184.1
1986	74.1	1.6	1.0	41.6	118.3	40.6	10.5	51.1	14.7	184.1
1987	69.2	1.3	1.0	41.9	113.3	43.4	11.9	55.3	15.4	184.0
1988 <sup>*)</sup>	68.6	1.2	1.0	44.7	115.5	44.3	12.8	57.1	15.4	188.0
1989 <sup>*)</sup>	65.9	1.2	1.0	44.3	112.4	46.7	13.4	60.0	15.4	187.9

1) : 추정치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66년과 1976년 돼지고기 가격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는 약간 감소하였고 반면에 가금육 가격은 가장 적게 올라 그 소비량(시장판매 중량기준)은 19%가 증가하고 있다. 동 기간 중 쇠고기의 값은 가금육 보다는 약간 높아 중간 수준은 보였는데 쇠고기 소비는 21%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동 기간 중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개인당 가용 수입이 26% 상승했기 때문이다.

1976년 이래 가금육이 모든 적육, 특히 쇠고기 보다 더 인기를 끄는 동안 돼지고기는 많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선호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76년과 1988년 사이에 주요 육류의 대비 가격의 변화 때문에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의 소비량은 24%가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는 18%, 그리고 가금육은 무려 56%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술적 발전은 농장이나 가공공장 수준에서 원가 절감을 가능케 하였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금육의 시장 가격을 적육 가격 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966과 1988년도 소비자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면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210%,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는 164%이었으나 가금육은 단지 130%에 불과하였다. 1988년 기준으로 소비자는 브로일러 1파운드당 평균 \$0.85를 지불하였고

Choice beef는 \$2.55, 돼지고기는 \$1.83이었다 (표4).

낙농제품 소비

미국에서 모든 낙농제품의 일인당 소비량은 1970년대 중반까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런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이후 저지방 우유, 그리고 치즈와 같은 품목의 소비량은 다른 품목의 감소분량은 보전할 정도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낙농제품의 소비량은 11%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5).

표 4. 연도별 닭고기와 쇠고기의 가격 비교

년 도	평균 소매 가격				
	쇠고기 <sup>1)</sup> (A) (¢/Lb)	돼지고기 (B) (¢/Lb)	닭고기(C) <sup>2)</sup>	B/A(%)	C/A(%)
1966	84.4	73.4	41.3	87	49
1967	84.6	66.0	38.1	79	45
1968	88.7	66.8	39.8	75	45
1976	148.2	134.0	59.7	90	40
1977	148.4	125.4	60.1	85	40
1978	181.9	143.6	66.5	79	37
1986	230.7	178.4	83.5	77	36
1987	242.5	188.4	78.5	78	32
1988	254.7	183.4	85.4	72	34

1) Choice beef

2) Broilers

표 5. 연도별 낙농제품의 소비량

단위 : 파운드/인/년

항 목	1인당 소비량 <sup>a)</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전유(Whole milk) <sup>2) 3)</sup>	207.5	181.1	161.7	139.6	126.6	109.9
전지방유 <sup>2) 4)</sup>	59.6	72.7	85.1	92.9	99.1	113.6
크림 <sup>2) 5)</sup>	3.4	3.3	3.3	3.4	4.0	4.7
요구르트 <sup>2)</sup>	1.3	2.0	2.5	2.5	3.7	4.6
기타 액상유 및 크림제품 <sup>2) 6)</sup>	1.8	2.0	2.1	2.3	2.7	2.9
버터	5.0	4.7	4.4	4.2	4.9	4.6
치즈 <sup>7)</sup>	13.0	14.3	16.8	18.2	21.4	24.0

항 목	1인당 소비량 <sup>a)</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코테지 치즈	5.4	4.7	4.7	4.3	4.1	3.9
농축우유	11.0	8.7	7.5	7.3	7.4	7.8
아이스크림	17.6	18.6	17.6	17.4	18.1	18.3
샤베트	1.5	1.5	1.4	1.3	1.3	1.2
아이스밀크	7.6	7.6	7.7	7.0	7.0	7.5
기타냉동유제품	1.3	1.0	0.8	0.6	0.6	1.8
무지방분유 <sup>8)</sup>	4.6	3.3	3.1	2.1	2.5	2.7
기타분유제품 <sup>9)</sup>	2.1	2.5	2.9	3.3	3.8	4.3
총 합 <sup>10)</sup>	560.1	539.4	544.5	540.9	181.2	598.2

- 1) 미국 거주 총인구기준(액상유와 크림자료 별도)
- 2) 농장에서 생산, 소비된 것, 판매량을 총합한 수치.
- 3) 일반 혹은 가향 whole milk 포함.
- 4) 저지방, skim, 버터밀크, 그리고 가향음료 포함.
- 5) 크림과 밀크크림 혼합물 포함.
- 6) 사우어크림과 애그노그 포함.
- 7) 치즈 및 치즈제품의 천연물상당.
- 8) 다른 낙농제품로 사용된 양 포함.
- 9) 건조유형, 건조 버터밀크, 전지분유 포함.
- 10) 모든 낙농제품, 우유상당, 유지방함량기준.

1987년도 저지방 액상 우유·(1~2% 지방, skim, 버터밀크, 그리고 가향음료)의 소비는 최초로 보통 시유(무처리, 가향)의 소비량을 앞지르고 있다. 이들의 소비량은 113.6 파운드 대 109.9파운드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에는 마시는 우유의 78%가 보통 시유였으나 1987년에는 이 비율이 49%로 떨어지고 있다. 저지방 우유는 상황이 달라서 1987년도 분포를 보면 79%가 1~2% 저지방, 12%가 skim milk, 9%가 가향 음료 혹은 버터밀크 였다.

치즈의 소비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일인당 소비량을 보면 1987년 24파운드에 이르러 1972년의 13파운드에 비하면 거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1972년과 1987년 사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Cheddar Cheese의 소비량은 75%가 증가하여 10.6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집단으로

보았을 때 Italian Cheese는 동 기간 중에 약 3배가 증가하였고 mozzarella 단독으로 4파운드에서 1987년 5.6파운드에 달하여 미국에서 2번째 좋아하는 치즈로 부상하였다. 이와같이 Mozzarella Cheese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에서 피자 요리나 이탈리아식 음식이 대중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Cream Cheese와 Neufchatel Cheese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Cream Cheese는 Swiss Cheese 를 앞지르고 1986년에는 미국에서 3번째 인기 있는 치즈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식생활의 고급화 현상으로 낙농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유 공급량은 1970년 일인당 0.73kg이었으나 1987년 25.5kg으로 상승하여 총 생산량이 연간 150만톤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생산되는 제품

을 보면(표6)과 같다. 즉 전체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공 제품의 생산량도 늘어나서 치즈의 경우 1980년 대비 87년에는 17배가 증가하였고 버터의 경우도 3배 이상 소비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도별 낙농제품 생산량(한국)

단위 : 톤

	1980	1982	1985	1987
시 유	258,587	400,593	714,370	1,065,189
가공시유	90,691	76,500	92,761	87,250
조제분유	16,747	17,643	19,195	19,592
연 유	2,022	1,137	2,555	2,441
버 터	1,123	1,423	3,266	3,780
치 즈	135	146	504	2,292
발 효 유	98,084	104,386	146,869	192,595
총납유량	452,327	576,236	1,005,811	1,413,126
가공용(%)	42.8	30.6	29.0	24.6

전체적으로 우유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각종 낙농제품류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제 도입되는 단계이므로 품목별 신장율의 차이는 있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총족의 과정

을 거치는 시기라고 여겨진다. 전체우유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 가공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제품의 절대적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모든 품목별 증가 추세만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같이 특정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나타날 단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낙농제품의 수요가 어느정도 포화상태를 이룬 후에는 품목별 수요 증감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기호의 추세와 함께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다른 경향이 포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과실류 소비

감귤류를 제외한 바나나, 포도, 사과, 아보가도, 파인애플, 그리고 딸기류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서 197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일인당 연간 소비가 26파운드 증가하여 1987년도 총생과실류의 소비는 98.6파운드에 달하고 있다(표7). 이와같이 소비량이 증가한 부분은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1970년 이래 미국의 생과실류 수입량은 2배로 증가하였다. 1987년에는 사과를 제외한 비감귤 과실류의 반이상이 수입에 의존하였다.

표 7. 연도별 과실류의 소비량

단위 : 파운드/인/년

과 실 명	1인당 소비량 <sup>a)</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감 귤 류	26.5	28.4	25.7	24.1	23.2	27.2
오 렌 지	14.0	15.4	13.0	13.2	12.4	13.9
탕 지 르 오 렌 지	1.5	1.9	1.5	1.2	1.3	3.3
탕 게 로 스	0.7	0.9	0.8	0.8	0.6	0.5
레 문, 라 임	2.0	2.1	2.3	2.4	2.8	3.1
그 래 이 후 루 트	8.3	1.8	8.1	6.7	6.1	6.5
비 감 귤 류	46.3	53.2	54.6	59.0	64.6	71.5
사 과	15.1	18.2	16.8	16.1	17.6	20.3
아 보 가 도	0.4	1.1	1.0	2.0	2.1	2.2
바 나 나	17.9	17.6	20.2	21.5	22.1	24.9
체 리	0.3	0.6	0.5	0.5	0.7	0.6

과 실 명	1인당 소비량 <sup>1)</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포도	2.0	2.9	2.8	3.4	5.6	6.5
복숭아	0.8	0.8	1.1	1.4	1.4	1.4
복숭아	3.7	4.7	4.7	5.2	5.1	4.5
배	2.3	2.7	2.1	2.7	2.7	3.2
애플	0.7	1.0	1.4	1.5	.4	1.6
자두, 오얏	1.0	1.3	1.5	1.7	1.9	1.9
딸기	1.5	1.7	2.0	2.1	2.8	3.0
기타 <sup>2)</sup>	0.5	0.6	0.6	0.8	1.2	1.2
총 계	72.9	81.5	80.2	83.1	87.8	98.6

- 1) 소매중량상당. 감귤류와 사과는 작물년도 기준; 실제 작물은 표시년도 전에 시작.  
 기타 비감귤류는 일반 년도기준  
 2) 살구, 무화과, 크란베리, 파파야, 키위를 포함.

한편 비감귤 과실 가공제품의 소비(주우스를 포함하여)는 1987년 15.9파운드로서 1972년에 비하여 14%가 감소하였다. 통조림 과실의 소비가 일인당 4.1파운드가 줄어든 것이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생산통계를 얻을 수 없어서 통조림된 사과, 사과 소스, 크린베리, 파인애플 그리고 감귤 부분이 제외되어 추산되었다.)

지난 수년간 냉동 혹은 건조과실의 소비는 증가되어 왔는데 1987년 비감귤 냉동 과실과 건조 과실은 각각 4.1파운드와 3.1파운드였다. 씨없는 건포도류의 1987년도 일인당 소비량은 1970년에 비하여 1파운드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건포도를 곡류 제품이나 제빵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견과 혼합 제품(견과실과 견과류의 조합제품)과 일반적 "out-of-hand" 제품이 인기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실류의 공급량은 식품의 고급화 추세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1970년 연간 일인당 과실류 공급량은 10kg이었으나 1987년에는 26kg으로서 2.6배가 상승하였고 1987년 공급 과실류를 보면 사과가 38.1%, 귤이 24%, 복숭아 10%였으며 동 기간 중 공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과실은 귤류로 알려지

고 있으며 총 과실류 생산량은 158만톤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과 등 기존 과실의 공급량은 어느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귤 혹은 기타 수입 과실의 소비 증가가 근래에 두드러지며 특히 바나나 등 남방계 과실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 야채의 소비

주요 야채 9개 품목의 일인당 소비량은 1987년 78.6파운드였으며 1972년 수준에 비하면 21%가 증가하였다. 1972년과 1987년의 소비량을 비교하면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는 각각 3.9파운드, 3.5파운드, 2.7파운드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속치를 보이고 아스파라가스, 당근, 콜리플라워 등도 소비량이 증가한 경향이었다(표8).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에 뚱단지, 양배추, 오이, 가지, 마늘, 채두, 푸른고추, 시금치 그리고 다른 소수의 야채들에 대한 1982년 이전의 소비량은 알 수가 없다(1981년도 이들 야채의 총 소비량은 전체의 28%를 점한다). 비슷하게 1981년 이전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멜론, 수박, 참외에 대한 통계도 수집이 불가능하여 졌다.

표 8. 연도별 야채류 소비량

단위 : 파운드/인/년

야 채 명	1인당 소비량 <sup>b)</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아 스 파 라 가 스	0.4	0.4	0.3	0.3	0.4	0.6
브 룩 콜 리	0.6	0.9	1.0	1.7	2.5	3.3
당 근	6.3	6.3	5.4	6.9	7.7	8.2
콜 리 홀 라 위	0.8	0.8	0.8	1.5	2.0	2.4
세 러 리	6.6	6.5	6.8	7.1	6.9	6.6
옥 수 수	7.1	7.2	6.7	6.5	7.0	6.7
상 치	20.9	21.9	23.8	23.9	24.2	21.1
양 파, 골 파 <sup>b)</sup>	11.8	12.6	12.9	12.3	15.1	15.3
토 마 토	10.3	10.2	11.2	11.2	13.0	14.2
총 합	64.9	66.6	68.9	71.5	78.8	78.6

- 1) 소매중량 상당
- 2) 골파는 1파운드에 0.05이하와 동일. 건조양파는 생체기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통조림하는 야채가 줄어들고 대신 냉동하는 양이 증가하였고 동결 야채(감자를 제외하고)의 일인당 소비량은 1972년 대비 1987년에 30%가 증가하여 1987년에 소비량은 17.1파운드(농가 수준 중량기준)에 이르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조림용 야채는 동 기간 중에 8%가 감소하였지만 1987년 기준 모든 야채 가공품 중 84%를 차지하였다.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토마토는 1987년 야채 통조림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단옥수수 12%, 오이저림은 6%, 기타 채소류가 8%를 차지하였다. 토마토 소스, 페이스트, 주우스, 통토마토, 케찹, 칠리소스 등의 통조림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마토는 1970년대 초로 부터 3% 증가하였으나 오이(저림용)와 아스파라가스, 당근, 채두, 강낭콩 그리고 단옥수수를 포함한 기타 야채통조림용은 각각 12%, 27%가 감소하였다.

일인당 감자 소비량은 1972년 이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냉동 감자가 생감자를 대체하고 있다.

1987년에 미국인 일인당 감자 소비량(농가 수준 중량기준)은 123파운드였다. 생감자와 동결감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8%였으며 칩이 14%, 건조 감자가 8%, 통조림 감자가 2% 수준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인당 야채 총 공급량을 보면 1972년 62.1kg에서 1987년 110.8kg으로 1972년 기준 78.4%가 증가하였고 1987년 구성을 보면 배추가 32.1% 무우가 21.8%, 양파 8.7%, 파 7.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수박, 딸기 등의 소비 증가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총 야채의 생산량은 658만톤에 이르고 있다.

#### 밀가루와 곡류제품 소비

근년에 밀가루와 곡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72년 이들의 소비량은 일인당 139파운드이었는데 1987년에는 169파운드로 상승되었다.

미국 곡류 소비의 약 75%를 점하고 있는 밀가루는 1987년 1인당 평균 소비량이 128파운드로서 1970년대 대비 15%가 상승하였다(표 9). 이와같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파스타

(pasta)가 1972년에 일인당 8.6파운드 소비되었으나 1987년에는 17.1파운드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9. 연도별 곡류 제품 소비량

단위 : 파운드 / 인 / 년

품 목	1인당 소비량 <sup>1)</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밀 가루 <sup>1)</sup>						
밀 가루	102.7	107.7	108.5	109.7	111.7	118.3
더 럽 밀 가루 <sup>2)</sup>	7.1	6.8	6.7	6.1	6.4	9.7
옥수수 제 품 <sup>3)</sup>						
가 루 와 밀	6.2	6.0	5.9	6.2	6.6	6.7
같은 옥수수 와 분쇄 품	1.6	2.7	3.1	2.7	2.8	2.8
전 분	1.9	2.1	2.5	2.2	2.0	2.0
쌀 <sup>2)</sup>	7.0	7.6	5.7	11.0	8.6	13.4
파 스타 제 품	8.6	9.7	10.3	10.0	11.3	17.1
아침 식사용 곡류 제 품	10.8	12.0	12.8	13.0	14.0	15.2

- 1) 소비량은 가공수준에서 측정
- 2) 마카로니, 스파게티, 국수에 이용
- 3) 분쇄물 기준

다른 곡류 제품의 소비도 증가하였는데 콘밀(corn meal)은 1972년 일인당 6.2파운드에서 1987년에는 6.7파운드로 증가했고 동 기간 중에 쌀은 2배나 상승하였다. 반대로 귀리, 보리, 같은 옥수수는 계속하여 감소하였다.

아침 식사용 곡류제품의 경우도 1972년 일인당 10.8파운드 소비에서 1987년은 15.2파운드로 증가하였고 즉석 곡류제품의 경우도 1972년에는 8.2파운드였으나 1987년에는 11.6파운드로 41%가 올라갔다. 조리 곡류제품도 1987년도 일인당 3.6파운드를 소비하여 동 기간 중 38%가 증가하였다. 최근 수집 가능한 1986년 자료에 의하면 아침 식사용 곡류 제품의 경우 미국이 가장 높아서 일인당 14.8파운드이며 다음이 아일랜드 12.6파운드, 오스트랄리아 8.3파운드, 뉴질랜드 7.9파운드, 캐나다 7.8파운드, 스웨덴 3.4파운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곡 소비량을 보면(표1

0)과 같다. 1972년 대비 1982년에 밀가루는 7% 증가하였고 쌀은 2.9% 증가한 반면 보리는 11.9%만이 소비되어 가장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였다. 한편 옥수수는 약 13배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 주고있다.

#### 음료의 소비

1987년에 미국인은 어느 때 보다는 많은 음료를 마셨다. 지난 20년 동안 비알콜성 음료는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고 탄산음료가 우유와 커피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였다(표11). 1986년 탄산음료의 소비량은 30.3gallon에 달했고 1987년과 1988년에는 약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National Soft Drink Association 이 1987년 이래 집계를 중단하였다).

감귤류 주우스의 일인당 소비량은 1972년 대비 1987년에 약 20% 증가하였고 비감귤류 과일 주우스의 경우 1972년 대비 1981년은 거의 40%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 자료는 얻기



## 미국의 식품소비 패턴 변화와 우리의 비교

가 어렵게 되었다. 식품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80년대에 비감귤류 주우스의 소비 증가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있다. 포장식 수는 또 다른 인기있는 품목이다. International

Bottled Water Association에 의하면 미국인은 병포장한 물을 1987년 5.7gallon을 소비하여 1985년 대비 25%가 증가하였다.

표 10. 연도별 곡류 소비량(한국)

단위 : 파운드 / 인 / 년

곡 류 명	1인당 소비량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쌀	124.6	119.8	134.7	131.9	130.0	128.2
밀 가루	34.7	30.0	32.3	34.4	31.1	37.2
보리	40.3	39.7	19.2	12.9	8.5	4.8
기타	2.2	3.4	7.1	10.7	13.4	17.6
합 계	201.8	192.9	193.3	189.9	183.1	187.8

표 11. 연도별 음료 소비량

단위 : 칼론 / 인 / 년

음 료	1인당 소비량 <sup>1)</sup>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비알콜음료	31.0	29.5	28.6	27.0	26.2	25.9
우유	24.1	21.0	18.8	16.2	14.7	12.8
저지방 우유	6.9	8.4	9.9	10.6	11.5	13.2
홍차	7.3	7.5	7.2	7.2	7.0	7.0
커피	33.6	31.5	27.3	26.9	26.5	26.5
탄산음료	22.3	22.2	26.6	27.1	27.2	
알콜음료	31.5	33.9	35.5	36.8	35.0	34.4
포도주	2.6	2.7	3.0	3.3	3.4	3.4
증류주	3.1	3.1	3.1	2.9	2.6	2.3

- 1) 탄산음료와 알콜음료는 업체자료로 환산한 것임. 우유, 탄산음료, 알콜음료는 미국거주인 기준. 커피와 홍차는 미국의 총인구 기준.
- 2) 인스탄트, 카페인제거 커피 포함.
- 3) 1983년부터 와인쿨러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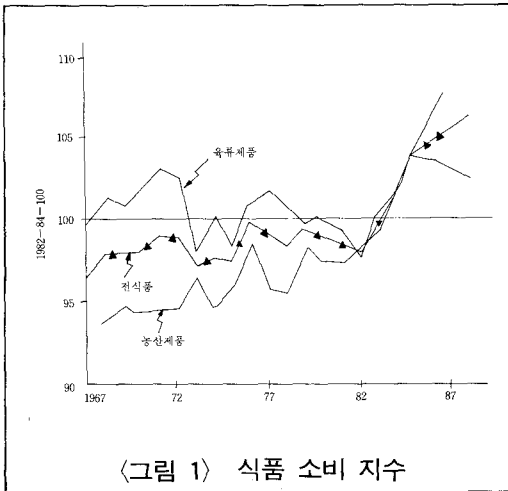
1972년과 1987년 사이 21세 이상에 의한 알콜성 음료의 소비는 평균 8% 증가하였다. 포도주는 30%가 증가하여 성인 1인당 3.4gallon, 맥주는 9% 증가하여 성인 1인당 3.4gallon을 소비하였으나 증류주는 1972년 대비 25%가 감소하여 2.3gallon에 머물렀다.

### 식품소비 지수

1인당 식품소지지수는 전체적인 식품 소비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일차적으로 식품소지지수는 양적 변화와 함께 주 식품항목의 변화, 즉 고가 식품인 쇠고기로부터 비교적 저가인 가금육으로 소비 경향이 변한다든지

특히 과일과 야채의 경우와 같이 가공된 형태에서 신선한 형태로 전이되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지수는 외식과 농장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된 양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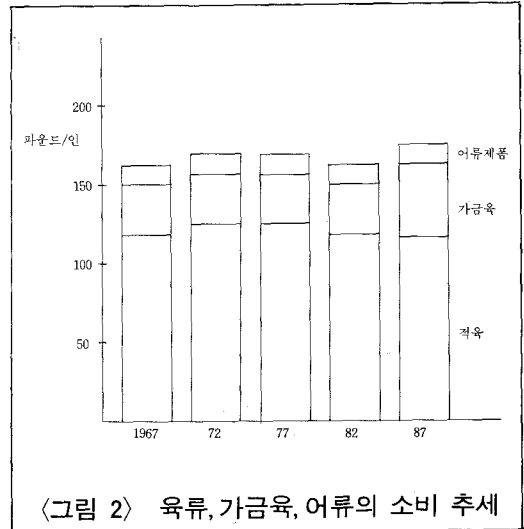
1987년, 미 농무성이 발표한 1인당 총식품소비지수는 1967년에 비하여 9%가 상승하였으며 20년동안 동물성 제품은 3.5% 상승에 비하여 농산물은 17%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대부분의 농작물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신선한 과일, 야채, 유지, 곡류제품 그리고 감미원의 증가가 앞섰다. 그러나 적육, 계란, 액상 우유와 크림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동물성 제품의 소비 증가는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그림1).



〈그림 1〉 식품 소비 지수

1987년에 소비한 육류, 가금육, 그리고 생선의 62%는 적육이었으나 1977년에는 72%, 1967년에는 76%이었다(뼈를 뺀 무게 기준으로). 1987년에 미국인이 소비한 총 육류의 평균 소비량 중 30%는 가금육이었는데 1977년에는 21% 1967년에는 19%에 불과하였다. 생선과 패류를 보면 1987년에 8%였고 1977년에 7%, 1967년에는 6%수준이었다. 1987년과 1967년을 비교해 볼때 적육은 평균 16파운드가 감소한

반면 닭과 칠면조는 23파운드가 생선과 패류는 5파운드가 각각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인당 미국인이 소비한 육류, 가금육과 생선의 양은 1987년에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2).



〈그림 2〉 육류, 가금육, 어류의 소비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도 육류, 낙농제품, 과일류의 소비 증가가 지난 20년간 괄목하게 나타났으며 이 경향은 우리의 소득이 상승하는 속도와 비례하여 어느수준까지 계속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곡류의 소비는 감소 추세를 펼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National Food Review, April-June, (1989)
2. 농촌경제연구원 : 식품수급표(1987)
3.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통계연보(1988)
4. 경제기획원 : 도시가계연보(1987)
5. 농림수산부 : 낙농관계자료(1988)